

韓・日語 母音體系 變遷의 比較研究

權 在 善*

< 목 차 >

- I. 序
- II. 韓・日 上古語와 原始 韓・日語의 母音體系
- III. 統合母音體系
- IV. 統合母音 이후의 韓國語와 日本語의 母音體系

<Abstract>

We insist that the Korean language has the genetic relationship with Japanese not with Altaic in several papers.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the common vowels in proto Korean-Japanese and we can find three vowel phonemes of the common vowel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 the old materials.

These phonemes are different phonetically in Korean and Japanese. They are as follows :

Korean	ə	o	i
Japanese	a	u	i

They are dialects which have three phonemes expecially. And the six vowels are allophones of three phonemes.

These six allophones developed into the later vowels of Korean and Japanese.

* 전 대구대학교 교수

In this paper we infer the later vowels of Korean and Japanese from the common vowels.

I. 序

韓·日語의 系統에 대해서는 다른 系統의 言語이다 또는 같은 系統의 言語이다 하는 相反된 見解가 제시되었다. Aston(1800年 後半)과 日本人 史學者 金澤庄三郎(1900年 初半)의 積極적인 同系統論이 주장되었고 金澤보다 앞서 日本의 史學者 白鳥庫吉(1800年 後半 以來)은 韓·日語 語彙의 풍부한 對應例를 제시하였다. 國內의 學者들로서는 徐廷範, 姜吉云, 金思燁, 金公七 등 많은 學者들이 韓·日語의 語彙, 音韻, 文法 등의 對應例를 제시하면서 身體語, 自然還境語 등의 많은 基礎語彙의 對應例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韓·日 數詞(基數詞)의 全體的인 對應關係는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日本 史學者들이 三國史記 地理志의 地名研究에서 高句麗 地名에 보이는 數詞 3, 5, 7, 10의 數詞가 日本語의 3, 5, 7, 10의 數詞와 一致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韓·日語의 親族性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로 高句麗 地名에서 쓰였으므로 高句麗와 日本語의 親族性은 입증하지만 新羅語를 계승하고 있는 現代韓國語와 日本語의 親族性을 입증하는 데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筆者는 現代韓國語에 傳하고 있는 一單位數詞와 十單位數詞, 鄉歌와 鷄林類事의 1, 2 등의 數詞形態와 日本의 二重曆의 數詞를 참고하여 韓國語 數詞의 變遷形態를 밝혀서 韓·日語 數詞가 같은 系統의 共同祖語 形態에서 現代韓國語의 數詞로 變化한 것을 입증하였다. 筆者는 또 偶然의 一致와 借用語를 排除할 수 있는 '集團對應의 方法'으로 數詞, 方位語, 左右語 등을 고찰하고 身體語의 '名詞의 動詞化' 形態를 찾아내어 많은 韓·日語의 基礎語彙가 서로 對應함을 確認하여 韓·日語가 같은 系統의 親族語임을 재삼 확인하였다.

韓·日語가 궁극적으로 어떤 語族에 속하느냐는 문제는 몇 가지 다른 見解가 있었지만 Ramstedt가 1600개의 Altai 語族 諸語와의 對應例를 제시함으로

써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同學이면서 Ramstedt說을 계승한 Poppe는 Ramstedt의 語彙資料에서 미답지 않는 것을 버리고 嚴選하면서 Ramstedt의 Altai說을 강력히 支持하기는 하였으나 韓國語를 터키, 몽고, 만주, 통구스 諸語와 對等한 語群으로 본 Ramstedt說을 修正하여 韓國語는 터키, 몽고, 만주, 통구스 諸語와는 原始Altai語에서 分化되었다고 하였다. 이 Poppe의 說은 韓·日語가 터키, 몽고, 만주, 통구스 諸語의 共通音韻, 共通文法과는 차이가 남을 말한 것이며 그러므로 해서 터키, 몽고, 만주, 통구스 語群과는 관계가 소원한 것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韓國語를 Altai 語族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日語는 우랄語와 알타이語가 나뉘듯이 터키, 몽고, 만주, 통구스의 Altai語와 나누어지는 東夷語로 나누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筆者의 이러한 見解에 기초하여 論旨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韓·日語의 原始語 내지 上古語의 母音體系는 터키, 몽고, 만주, 통구스 語群의 共通母音體系 곧 Altai語 共通母音體系와 一致하지 않고 별개의 原始母音體系에서 출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論文의 敘述上の 편의로 文獻資料가 형성되기 시작한 韓國의 三國建國(대략 西曆紀元 2世紀 전후)를 기준으로 하여 文獻資料가 전하지 않는 그前을 上古語, 文獻資料가 이루어지고 일부 전하게 된 三國 初期로부터 三國이 統一된 8世紀를 전후한 時代까지를 古代語로 하고 韓·日語의 東夷語族이 처음 이루어진 時期를 가상하여 原始 韓·日語라 하기로 한다.

지금 전하는 韓·日語의 古代語 文獻資料로는 韓國側은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人名, 地名, 官名, 國名과 鄉歌 11首가 전하고 日本側 資料로는 萬葉集의 방대한 歌謠記錄이 전하고 있다. 특히 日本의 萬葉集歌謠는 거의 완벽한 解讀을 하였고 그 音韻의 研究도 충분히 이루어져 그 당시의 音韻體系도 밝혀졌다. 그러나 韓國의 言語資料는 數의 少로 적어서 鄉歌의 解讀도 완벽하지 못하며 古代語의 音韻도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대신 韓國에서는 15세기에 한글이 發明되어 15世紀와 그 以後의 言語를 매우 자세하게 알 수 있는 言語資料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는 15世紀 資料로써 逆追跡함으로써 古代語의 音韻에 接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古代 이후의 韓·日 양국의 母音體系는, 大

母音體系로서 日本의 萬葉假名에서 보이는 母音體系와 韓國의 現代 中央語(서울 方言)母音體系가 있고 小母音體系로는 韓國의 慶尙道方言의 母音體系와 日本의 東京方言의 母音體系가 있다. 이러한 韓·日語의 母音體系를 가지고 그것의 形成과 變遷을 比較考察하고자 한다.

日本 萬葉集의 言語에서 보이는 大母音體系는 現代 韓國語 中央語의 母音體系와 類似하므로 15世紀의 韓國語의 母音體系는 韓·日語의 大母音體系的 形成過程을 이해하는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5世紀 또는 高麗시대 韓國語의 單母音의 音價는 現代國語의 母音音價와 같은 것으로 봄이 一般的이나 터키, 몽고, 만주, 투구스語의 알타이 共通母音體系와 對應시켜 現代國語의 母音과 다른 母音의 音價를 가졌다는 金完鎭¹⁾, 李基文²⁾의 說이 있고 또 古代國語의 母音體系도 알타이 共通母音體系와 對應시켜 해석하는 金完鎭, 金思燁 등의 견해가 있다.³⁾ 그러나 筆者는 韓·日語의 母音體系나 音價는 알타이語와는 無關하다는 입장에 서 있고 특히 15世紀의 單母音의 音價는 現代語의 音價와 같다는 견해에 서 있다. 이것에 對한 考證이 先行하여야 하겠으나 紙面관계로 別稿로 미룬다.

그리고 15世紀語의 「·」의 音價는 [ə]라는 筆者의 견해에 서서 본 논문을 진행한다.⁴⁾ 「·」의 音價를 [ʌ]로 보기도 하나 「·」의 音價가 [ʌ]가 아님은 다음 같은 사실이 증명한다.

- ① 「·」가 없어지면서 文獻語(中央語)에서 주로 中舌音 「ㅡ」[i]와 「ㅏ」[a]로 변했는데 이것은 「·」가 後舌音이 아니고 그것들과 같은 中舌音임을 드러낸다.
- ② 「·」가 만약 後舌音 [ʌ]였다면 그것이 없어질 때 [ʌ]와 가까운 「ㅓ」[o]로 변한 것이 많을 것이나 文獻語(中央語)에서 兩脣音 「ㅍ, ㅂ」 등의 다음에 있어 그것에 同化된 경우와 연속된 「·」 母音 音節의 둘째 音節의 初聲이 「ㄹ」일 때

1) 金完鎭, 『國語音韻體系的 研究』 P.P. 66~64

2) 李基文, 『新訂版 國語史概說』 P.P. 109~115

3) 金完鎭, 前掲書, P.P. 66~88

金思燁, 『古代朝鮮語と日本語』 P.P. 157~170

4) 「·」의 音價에 대한 筆者의 見解는 다음 著者 參考할 것

권재선, 『훈민정음의 표기법과 음운 -중세음운론-』 P.P. 230~240

異化作用을 일으키는 경우 외에는 거의 「ㄴ」[o]로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ㄴ」가 後舌音 [ɳ]가 아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II. 韓・日 上古語와 原始 韓・日語의 母音體系

韓・日 上古語는 韓國의 三國의 建國 이전의 言語로 이 時期는 具體的인 言語資料가 文獻에 전하지 않는 韓・日語의 先史時代이다. 그러므로 이 時代의 具體的인 言語資料는 歷史學에서 볼 수 있는 先史時代를 연구하는 考古學과 같은 특별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낱말은 흔히 다른 새로운 낱말에 의해서, 특히 外來의 낱말에 의해서 교체되거나 퇴출된다. 그런데 낱말 가운데는 몇 개의 낱말이 한 組織體를 이루거나 아니면 意味上 긴밀한 관계를 가진 單語族을 이루어 그 組織力에 의하여 다른 낱말의 個別的인 침공을 방어하여 오래도록 살아 남는 것이 있다. 組織體를 이루어서 오래도록 유지된 낱말무리로서는 一單位數詞, 方位名, 左右名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낱말의 組織體와 비슷하게 組織力을 갖고 오래도록 유지된 것으로 單語族의 낱말이 있다. 이 單語族의 낱말 가운데 韓國語와 日本語에 다 같이 있어서 양편 單語族의 個別語가 서로 符合하는 ‘單語族의 符合切片’이 있는데 이러한 희귀한 ‘單語族의 符合切片’으로 「곰」(熊) 單語族이 있다.

(韓國語)	(日本語)
kom(熊)<곰>	kuma(熊)
kam(神)<검>	kami(神)
kim(王)<금>	kimi(王)

現代韓國語에 「검」(神)은 쓰이지 않으나 다음처럼 「검」(神)의 낱말이 現代까지 전하였다.

神[신] 天 — 引出萬物者 검. (崔南善, 新字典 三. 二〇)

검(名) 신, 귀신 (文世榮, 우리말辭典, P.80)

「금」(王)은 단독으로 쓰인 예는 전하지 않는다. 新羅時代에 이미 「넛금」(尼師今, 尼叱今)의 複合語로 쓰이었다. 檀君史話의 「王儉」은 「넛금(王)」의 鄉札表記로 보이며 「儉」은 다음처럼 助辭表記 곧 末音添記法으로 된 것이다.

秋察(三遺, 祭亡妹歌)

秋(ㄱ울) — 祭(울)

王儉(三遺, 檀君史話)

王(넛금) — 儉(금)

그런데 日本書紀에는 王을 'nirimu'로 音釋하고 있어 「니림」(nirmu) 만으로 王을 뜻하는 낱말임을 알 수 있으므로 「넛금」은 「니림」(王)과 「금」(王)의 複合語임을 알 수 있다. 韓國語에서 이들 낱말의 이루어짐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니림(王) $\left\{ \begin{array}{l} \text{니리} - \text{ㄹ} (\text{名詞接尾辭}) > \text{님} - \text{금}(\text{王}) \\ \hspace{10em} (\text{'리' 탈락}) \\ \text{니리} - \text{금}(\text{王}) > \text{니} - \text{금} > \text{넛금}(\text{尼叱今}) \\ \hspace{10em} (\text{'리' 탈락}) (\text{사이시옷 발생}) \end{array} \right.$

이 「곰」(熊) 單語族은 三國遺事의 檀君朝鮮 史話에 전한다.

魏書에 이르되 지난 2000년 전에 檀君 王儉이 있어 阿斯達에 都邑을 세우고 나라를 열고 이름을 朝鮮이라 하였다.

古記에 이르되 …… 그 때 神이 신령스러운 숙(靈艾) 한 줄기와 마늘(蒜) 20 쪽(枚)을 두고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햇빛을 100일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몸을 얻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곰(熊)과 범(虎)은 그것을 먹고 21일을 피하여 곰은 여자 몸을 얻었으나 범은 피하지 못하였다. 곰 여자는 결혼할 사람이 없으므로 檀樹 아래서 아이를 배기를 呪願하였다. 雄이 일시 남자로 변하여 혼인하여 아이를 배어 낳으니 이름을 檀君 넛금(王儉)이라 하였다. 唐高의 즉위한 지 50년인 庚寅에 都邑하고 비로소 朝鮮이라 일컬었다.(三國遺事, 卷一 古朝鮮)

이 三國遺事의 記事로써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곰」(熊) 單語族의 「곰」(熊)은 일찍이 古朝鮮族이 totem으로 삼았던 것이며 古朝鮮族이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대상이다. 그러한 뜻이 옮겨서 神을 일컫는 「검」(神)이 되고 또 神君으로서 王을 일컫는 「금」(王)이 되어 서로 意味上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單語族을 이루어 오래도록 쓰이어 왔다.

② 「곰」(熊) 單語族은 古朝鮮時代に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 사용 시기가 적어도 서력기원전 1500년쯤 이전으로 추정된다. 檀君의 건국은 堯임금 즉위 후 50년이라 하고 간지로 三國遺事에서는 庚寅 東國通鑑에서는 戊辰이라 하였는데 後者로 계산하면 西曆紀元前 2332年이다. 그러나 堯의 時代가 傳說的이어서 그 時代를 정확히 믿을 수 없는데 文獻記錄이 그 보다는 더 분명한 箕子朝鮮 立國의 年代가 기원전 1122년이므로 古朝鮮은 그 보다 몇 백년 전인 기원전 1500년쯤 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古朝鮮의 건국은 적어도 지금부터 3500년쯤 전으로 보겠다.

이렇듯 古朝鮮 記事를 通하여 「곰」(熊) 單語族은 3500년쯤 전의 韓・日 上古語 資料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자료는 韓・日 두 나라의 符合切片이 있어 그 母音이 다음처럼 대응된다.

(韓國語)		(日本語)
o	—	u
ə	—	a
i	—	i

韓・日 上古語의 母音體系는 다른 낱말 資料를 더 풍부하게 찾지 못하여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이 「곰」(熊) 單語族 母音의 韓・日語 사이의 대응관계와 그 母音의 종류로 보아 韓・日 上古語의 母音體系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곰」(熊) 單語族의 韓國語 母音 [o ə i]와 日本語 母音 [u a i]를 합치면 그 수가 [i i ə a u o]의 6모음이나 되고 또 이 6모음은 母音圖上에서 前舌母音이 하나 뿐인 점 외에는 골고루 分布하고 있어 上古語 母音體系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i i u
ə a o

② 前舌母音은 15世紀 韓國語에도 | 母音 뿐이었으므로 韓·日 上古語에 前舌母音은 | 母音 뿐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韓·日 上古音은 두 나라 母音을 다 합치면 6母音이 되기는 하나 韓國語와 日本語에서는 각각 3母音 뿐이다. 이렇게 韓·日語에 각각 3母音 뿐인 것은 韓·日語 上古音의 母音 音素가 3母音 뿐이기 때문이겠다. 그렇게 해석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① 韓·日 上古語는 韓國語와 日本語가 아직 나뉘기 前이므로 韓國語와 日本語는 方言의 관계에 있는 같은 言語이다.

② 韓國語의 母音 [o ə i]와 日本語 母音 [u a i]는 相補의 分布를 이루므로 다음처럼 音素는 3母音이고 韓國音과 日本音은 각각 같은 音素의 變異音이다. 音素는 母音圖上 外郭에 있는 基本母音 /u a i/로 한다.

(韓·日 上古音 音素)	/u/a/i/
(韓國語의 音聲)	[o][ə][i]
(日本語의 音聲)	[u][a][i]

韓·日 上古語에서 韓國語와 日本語는 같은 言語의 方言관계에 있었으며 서로 共通하는 3母音의 音素를 가졌으나 音聲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音聲은 서로 달라도 相補의 分布를 가지는 變異音이었으므로 서로 같은 3音素를 공유하여 같은 소리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韓·日語 上古音 3音素의 韓·日 變異音 對應例로 보이는 것으로는 다음 같은 것이 있다.

① 音素 /i/의 音聲 [i](韓國語)와 [i](日本語)의 대응

(한국어) (일본어)

kim(王) 금 kimi(君)

mir(水) 물 > 물 *mitu > mitsu(水)

pir(火) 불 > 불 *pi > fi > hi(火)

② 音素 /a/의 音聲 [a](韓國語)와 [a](日本語)의 대응

(한국어) (일본어)

kam(神) 검 kami(神)

pər(原) 벌 *para > fara > hara(原)

pər(蜂) 벌 *pati > fatsi > hatsi(蜂)

kəpup(龜) 거북 *kape > kame(龜)

③ 音素 /u/의 音聲 [o](韓國語)와 [u](日本語)의 대응

(한국어) (일본어)

kom(熊) 곰 kuma(熊)

k'or(家畜用草) kusa(草)

moro/moi(山) mure(山)

☆ 單語의 머리예 *표를 한 것은 推定한 形態임을 보인다.

위에 보인 例들은 韓·日 上古音에 있어서는 共通하는 3母音의 變異音이 뒤에 音素로 굳어져 韓國語와 日本語에 각각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韓·日 上古語에서는 韓國語와 日本語가 共通되는 音素를 가지고 듣고 말하는, 같은 말이면서도 서로 다른 變異音을 가진 A, B의 다른 方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方言은 韓國語와 日本語로 對立된 A, B 方言이 아니고 韓國의 각 나라 곧 新羅, 高句麗, 百濟 안에서도 A, B 方言이 있고 日本 안에서도 A, B 方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韓國語와 日本語가 A, B 方言型으로 대립되는 것은 뒷날에 韓國語는 韓國內의 A 方言 중심으로 통합되었고 日本은 日本內의 B 方言 중심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겠다.

韓國의 각 나라 안에서 A, B 方言이 존재한 증거는 高句麗와 新羅의 國名이다. 高句麗의 國名이 漢字音으로 「高麗」(korjə) 또는 「句麗」(kurjə)로 傳寫되었는데 音素上으로 그 첫음절이 /ko/와 /ku/로 다른 소리였을 리 없다. 한 나라 안에서 두 가지의 다른 音素로 말하였을 리 없다. 音素上으로 그 첫 음절

은 /ku/이나 音聲上으로 A 方言에서는 [ko]로 발음하고 B 方言에서는 [ku]로 발음한 것이고 비록 音聲上으로는 다르게 발음해도 高句麗人의 의식에는 /ku/로 말하고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ko]와 [ku]가 구분되는 漢字로 그 音聲을 轉寫하면 高[ko]와 句[ku]의 다른 표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新羅의 國名の 경우도 마찬가지다. 新羅의 國名으로 「徐羅伐」(səra-bar)과 「斯盧」(saro)로 표기되어 그 語頭音이 [sə] 또는 [sa]로 轉寫되었는데 이것 또한 /sa/ 音素의 A, B 方言의 變異音을 漢字音으로 轉寫한 것이겠다.

이상으로 韓·日 上古音의 母音은 /i a u/ 三母音體系로 되어 있고 [i a u]와 [i ə o]의 變異音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言語는 원래 자음 音節에서 母音이 發達하였으므로 三母音音素의 變異音 6 母音은 三母音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래는 變異音이 없는 /i/ /a/ /u/ 三母音體系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 三母音體系는 최초의 母音體系이겠으므로 이것은 바로 韓·日原始母音體系이겠다.

Ⅲ. 統合母音體系

1. 變異音의 統合과 音素化

韓·日 上古音의 A, B 方言의 變異音은 뒤에 다른 部族의 다른 地域으로의 移住, 混居와 部族의 統合 및 國家의 統合과 共通의인 文化, 敎育의 發達 등으로 A, B 方言의 變異音이 같은 地域, 같은 사람이 다 같이 使用함에 따라 音聲의 統合이 일어나고 또 文化가 發達함에 따라 語彙가 대폭 증가하여 音韻의 負擔量이 많아져서 A, B 方言의 變異音이 모두 音素化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現象을 證明하는 것은 15世紀 韓國語의 母音體系를 보아서 알 수 있다.

특히 韓國語의 15世紀 母音은 A, B 方言 統合의 증거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증거로 다음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15世紀 韓國語의 母音은 母音의 種類와 數가 · 音を 除外하면 韓·日 上古

語의 A, B 方言의 變異音을 統合한 것과 꼭 같다.

(韓·日 上古音 母音의 變異音) (15世紀 韓國語 母音)

i	i	u	i	i	u
ə	o		ə	o	
a			ə		
			a		

② 15世紀 韓國語의 母音은 語頭音節에서는 모든 소리가 音素化하여 對立하지만 語中, 語末 音節에서는 A, B 方言의 變異音의 現象을 그대로 간직하여 三母音體系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語中, 語末 音節의 母音은 앞 音節의 母音에 따라 母音調和를 하는데 다음처럼 陰母音과 陽母音으로 對立되고 陰陽으로 對立된 각 짝은 실상 하나의 音素의 역할을 한다.

(陰母音) [-] [ɨ] [ɯ]

(陽母音) [·] [ɪ] [ʊ]

(機能) /·/ /ɪ/ /ʊ/

그 機能을 具體的으로 보이면 다음의 調母音, 副詞形語尾, 插入母音 등은 하나의 形態素로 두 變異形態를 가진 이들은 서로 母音調和의 條件에 따라 相補의 分布를 하므로 그 形態素를 音韻으로 볼 때는 한 音素가 된다.

<形態> (變異形態)(形態素)

(調母音) [-] [-] /·/

(副詞形語尾) [ɪ] [ɨ] /ɪ/

(插入母音) [ɪ] [ɯ] /ɪ/

<音節> (變異音)(音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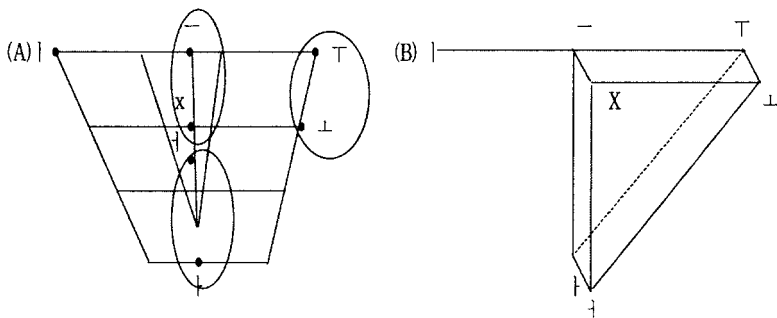
이처럼 語頭音節에서는 7母音이 모두 音素化하여 對立하지만 語中, 語末 音節에서는 A, B 方言의 變異音의 現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統合變異音이 모두 音素化하는 過渡期的 現象이므로 A, B 方言의 變異音의 統合過程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母音統合관계로 보아 母音調和란 A, B 方言의 統合過程의 音韻現象이다.

韓·日 上古音의 三母音體系는 다음 시대에 그 變異音의 統合과 音素化를 통하여 母音을 확장하였다.

2. 母音調和와 「·」 母音의 發生

A, B 方言은 각각 3母音만 가졌던 것인데 그것이 한 사람의 意識 속에 統合되어 3개의 母音 音素에 6개의 變異音을 가지게 되면 다음처럼 된다.



☆ 위 그림의 X표는 짝으로 있어야 할音が 없는 것을 보임.

각 音素의 變異音은 서로 짝이 되어 그림 (A)처럼 3개의 音素 領域으로 나누이고 그림 (B)처럼 立體構造를 가진다. 이러한 두 系列의 對立이 母音調和 音韻體系이다. 그리고 母音調和 音韻體系는 완벽하게 짝을 가진 對立體系여야 한다.

그런데 그림 (A)와 (B)를 보면 母音의 짝을 서로 인접한 소리에서 취하여 「ㅏ」와 「ㅓ」의 짝은 後舌音 上部, 「ㅑ」와 「ㅕ」의 짝은 中舌音 下部에서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ㅡ」는 中舌音 上部에서 짝을 취해야 하겠는데 남은 「ㅣ」는 전혀 다른 位置인 前舌音에 있어 「ㅣ」와는 짝을 취할 수 없다. 그래서 「ㅡ」는 같은 部位 끝 中舌音 上部에서 짝을 취하게 하는 母音調和體系의 母音 構造的 압력으로 「ㅡ」의 짝 「·」[ɐ]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韓·日 上古音의 變異音의 統合과 그것의 音素化의 過程에서 「·」[ɐ]音이 發生하여 統合母音體系는 7單母音體系를 이루었다. 15世紀 韓國語의 母音體系는 바로 이러한 典型的인 7母音 統合母音體系이다.

3. 統合母音의 二重母音과 弱滑音

15世紀 韓國語의 文獻語에는 「ㅣ ㅏ ㅓ」의 滑音이 있다. 滑音은 半母音인데 半母音 記號는 「ㅣ」는 [j], 「ㅏ」는 [u], 「ㅓ」는 [w]이다. 그런데 이들 15世紀韓國語의 半母音은 口蓋音化를 일으키지 않았다. 口蓋音化는 口蓋音化를 일으키는 半母音이 생겨서 일어나는 現象이다. 이 口蓋音化를 일으키는 半母音이 消滅하면 口蓋音化는 停止된다. 口蓋音化를 일으키지 않는 15世紀 韓國어 文獻語의 半母音과 口蓋音化를 일으키는 半母音을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記號를 세우고 弱滑音과 強滑音이라 이르기를 한다.

(일반 滑音 기호) j u w

(弱滑音 기호) ĭ ŭ ʷ

(強滑音 기호) ĩ ǔ ǖ

弱滑音과 결합한 15세기 韓國語의 二重母音은 다음 같은 것이 있었다.

ㅣ[ĭ]	ㅏ[io] ㅓ[ia] ㅗ[iu] ㅜ[i]
ㅣ[əĭ]	ㅓ[əi] ㅗ[əi] ㅜ[əi] ㅜ[əi]
ㅏ[ŭ]	ㅓ[ŭa] ㅗ[ŭi] ㅜ[ŭi] ㅜ[ŭi]
ㅓ[ʷ]	ㅓ[ʷa] ㅗ[ʷi] ㅜ[ʷi] ㅜ[ʷi]

弱滑音은 口蓋性성이 弱해서 言衆들이 一般母音 「ㅣ ㅏ ㅓ」로 意識한다. 그래서 15世紀 韓國語의 表記에서 위의 예처럼 「ㅣ ㅏ ㅓ」 등을 一般母音으로 意識하고 표기하였다. 그런데 [ia iə io iu]의 弱滑音 [ĭ]는 「ㅣ ㅏ ㅓ ㅗ ㅜ」 등 「ㅣ」로 表記하지 않고 「·」을 더하여 한 글자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 上昇滑音은 「ㅣ」로 표기된 下降滑音과 소리가 다르지 않다. 당시의 言衆들이 또한 「ㅣ」로 意識하였음은 訓民正音解例 中聲解가 증언하고 있다.

ㅏ와 ㅓ는 같으나 ㅣ에서 일어났다. ㅓ와 ㅗ는 같으나 ㅣ에서 일어났다.

ㅍ와 ㅍ는 같으나 ㅍ에서 일어났다. ㅋ와 ㅋ는 같으나 ㅍ에서 일어났다.

(訓民正音解例 中聲解)

위의 설명으로 「ㅍ ㅍ ㅍ ㅍ」의 소리는 「ㅍ ㅍ ㅍ ㅍ」로 의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統合母音 이후의 韓國語와 日本語의 母音體系

1. 統合母音 이후의 母音體系

韓國語와 日本語는 統一國家가 이루어지면서 方言的 差異에서 外國語로 分化되었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韓國과 日本에 統一國家가 이루어지면서 각각 자기 國家 안의 言語統一이 이루어져 國家別로 方言이 國語로 統一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統一國家 전에는 韓國語와 日本語는 같으면서 A, B 方言이 韓國에도 있고 日本에도 있었으나 國家別로 言語가 統一된 統一國家 후에는 A, B 方言이 아니고 韓國語와 日本語로 나누어져 다른 나라의 말로 발달하였으며 그 母音體系도 韓國語 母音體系와 日本語 母音體系로 다르게 발달하고 對立되었다. 그러나 다같이 韓·日 上古音 變異音의 統合母音에서 發達하고 두 나라의 文化 여건도 비슷하므로 비슷한 母音體系와 母音體系 類型이 존재한다.

韓國語와 日本語는 둘 다 文獻語와 함께 발달한 前舌母音이 많은 大母音體系가 있고 口語로 발달한 方言에는 前舌母音의 數가 적고 전체적으로도 母音의 數가 적은 小母音體系가 있다. 口語의 方言에 母音의 數가 중간에 드는 다른 母音體系도 있지만 大·小母音體系가 文獻語와 함께 발달한 母音體系와 口語로 발달한 母音體系를 대표하는 두 類型이 있다.

大母音體系로는 日本語에는 詩歌의 말에 보이는 奈良時代 文獻語의 大母音體系가 있고 韓國語에는 17世紀 이후의 文獻語와 現代 標準語에 보이는 大母音體系가 있다. 그리고 小母音體系로는 日本語에서는 現代 標準語로 쓰이는 東京方言의 小母音體系가 있고 韓國語에는 慶尙道方言의 小母音體系가 있다.

韓國側에서도 新羅의 三國統一期の 鄉歌 등에 쓰였던 文獻語에 大母音體系 가 있었는지는 文獻資料가 적어서 그 時代의 말을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당시의 母音體系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단 傳承漢字音에 前舌母音 'e ε ø y' 등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新羅時代 文獻語는 아직 大母音體系로 발달하지 못한 것 같다. 口語에 前舌母音이 적고 文獻語에 前舌母音이 많은 것은 文獻語는 漢字語와 함께 쓰고 또 漢字語를 잘 아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 점으로 보아 漢字音은 前舌音이 많으므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 口語는 文獻語에 비하여 漢字를 잘 모르는 일반 민중이 사용하므로 漢字音의 영향을 적게 받아 前舌音이 적은 韓・日語의 전통을 이어 前舌音이 적은 小母音體系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大母音體系

1) 韓國語의 大母音體系

大母音體系는 韓國語에서는 18世紀 ~ 19世紀에 발달한 韓國語의 文獻語의 母音體系와 그것을 이은 現代標準語가 거기에 속한다.

韓國語의 大母音體系는 다음과 같다.

i	y	ɨ	u
e	ø	ə	o
ε		a	

韓國語의 大母音體系는 音素의 特徵으로는 15世紀 韓國語의 統合母音體系에서 「·」母音이 없어지고 前舌母音 [e ε y ø] 모음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낸 音韻變化는 口蓋音화와 ㅓ母音逆行同化이다.

韓國語의 文獻語에서는 15世紀末부터 口蓋音化의 徵兆가 보였는데 16世紀에 들어서면서 口蓋化現象이 서서히 일어났다. 口蓋音化는 口蓋性이 강한 強滑音이 발생하므로 이루어지고 그 強滑音이 소실하면 口蓋音化는 그친다. 이 強滑音은 그 前의 弱滑音이 變換한 것이다. 弱滑音은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言衆

들이 一般母音 「ㅣ」로 의식하나 強滑音은 口蓋性이 強하여 中舌高母音 [i]나 [ɿ]로 의식한다. ‘덩거당(停車場) > 정거장 > 정거장’의 ‘덩’과 ‘당’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b)	(c)	(a')	(b')	(c')
tɿaŋ > ʧɿaŋ > ʧaŋ			tɿaŋ > ʧɿaŋ > ʧaŋ		
덩	정	정	당	장	장
	ʧiəŋ			ʧiə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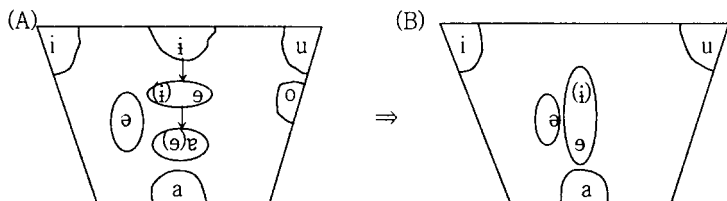
위 예의 (b)와 (b')의 口蓋性子音 다음의 強滑音 [ɿ]는 口蓋性이 強하여 中舌高母音 [i]의 위치에서 調音되어 [i]音과 매우 비슷한 소리로 의식된다.

이렇게 하여 強滑音 [ɿ]와 中舌高母音 [i]는 서로 衝突하게 되고 口蓋性이 相對的으로 弱한 [i]音이 衝突을 회피하여 아래로 물러난다.

[i]音의 下降으로 [ɐ]音의 非辨別音(語中音節, 語末音節의 [ɐ]音 ~ 第二音節 이하의 [ɐ]음)은 下降한 [i]音과 統合되고 [ɐ]의 辨別音(語頭音節 [ɐ]音) ~ 第一音節의 [ɐ]音)은 非辨別音 [ɐ]와 統合한 [i]音을 회피하여 前舌音으로 기울어진 [ə]音의 영역을 피해서 그 아래쪽 [e]로 下降하였다. 辨別音 [ɐ]가 [e]로 下降하였음은 ·[ɐ]音의 第二期變化에서 「·」가 「ㅏ」[a]로 변한 것은 그 第一期變化에서 「ㅏ」[a]와 가장 가까운 소리 [e]로 變해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ɐ]이던 소리가 [a]로 갑자기 변할 수는 없으며 [ɐ]가 [a]로 변하려면 [a]에 가까운 소리로 변했다가 다시 [a]로 변해야 한다.

[ə]는 漢字音 [e]의 轉寫音으로 쓰이기도 하였으므로 [e]音 쪽에 치우치고 [e]의 變異音을 가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도 고려하여 그림으로 보이면 口蓋音化에 의한 韓國語 大母音體系의 變化는 다음 왼쪽 그림 (A)와 같다.



☆ () 안의 音聲은 移動하기 前의 音聲을 보인다.

☆ 괄호를 한 音聲記號는 그 영역의 실제 音聲을 보인다.

위와 같은 母音移動을 確固히 하려면 [i]音의 下降이 證明되어야 한다. 韓國語 近世語에서는 분명 「·」[ɐ]音이 소멸하였다. 이 [ɐ]音이 第一期 消滅에서 非辨別位置(第二音節 이하의 音節)에서 「·」의 相當수가 「ㅡ」로 바뀌었음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있으며 「ㅡ」의 變化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筆者가 처음으로 이 論文에서 「ㅡ」音의 變化를 말한다. 여태까지 「·」音의 消滅만을 염두에 두고 資料를 살폈기 때문에 「·」音의 變化만을 말하게 된 것이나 실상 「ㅡ」가 「·」로 표기가 變化된 것이 많다는 사실도 주목하여야 한다. 「ㅡ」가 「·」로 變化된 자료에 주목해 보면 「·」가 「ㅡ」로 變換된 것이 아니라 「ㅡ」가 「·」로 變換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ㅡ」와 「·」의 混記에 대하여

近世語의 자료에 第二音節이하에서 「ㅡ」가 「·」로 바뀐 표기도 많이 발견되고 반대로 「·」가 「ㅡ」로 바뀐 예도 많이 발견된다. 「·」音이 없어지면서 「ㅡ」음에 合류한 것이 아니고 「ㅡ」音이 下降하여 「·」音에 統合하면서 「·」音을 消滅로 이끌었다. 그렇게 보는 까닭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면으로 말할 수 있다.

(1) 「·」가 「ㅡ」로 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가 「ㅡ」로 변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다음 같은 것이 있다.

- ① 「·」[ɐ]가 「ㅡ」[i]로 변했다면 [ɐ]음이 高母音으로 上昇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第一音節의 [ɐ]音도 같이 上昇했거나 아니면 제자리에 남아 [ɐ]音을 지녔을 것이다. 그렇다면 第二期 變化 때 [i]音으로 上昇하는 수는 있어도 下降하여 멀리 있는 [a]에 合流할 수가 없다.

- ② 「·」[ə]의 非辨別音이 「ㅡ」[i]로 上昇했다면 그러한 上昇을 일어나게 한 音韻論의 原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原因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가 「ㅡ」로 변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2) 「ㅡ」가 「·」로 변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ㅡ」가 「·」로 변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으로는 다음 같은 것이 있다.

- ① 「ㅡ」[i]음이 아무 변화가 없이 [i] 音價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ㅡ」는 표기상 전혀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非辨別 위치에서 「ㅡ」가 「·」로 바뀐 표기가 많이 있다. 이것은 「ㅡ」[i]의 音價가 변화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② 원래 [i]음을 표기한 「ㅡ」가 「ㅡ」로도 표기하고 「·」로도 표기한 것은 「ㅡ」[i]의 音價가 변하여 「·」[ə]로 변했다고 보면 다음처럼 합당한 설명이 된다.
 - (a) 「ㅡ」의 음가가 [i]에서 [ə]로 변한 뒤에도 [i]의 音價 때 「ㅡ」를 쓰던 관습이 남아 일부 「ㅡ」 표기가 쓰이기도 하였다.
 - (b) 「ㅡ」의 音價가 [ə]로 변했으므로 실제 소리에 따라 [ə]의 글자 「·」를 쓰기도 하였다.
- ③ 「ㅡ」[i]는 近世語(17 ~ 19世紀)에서 「ㅡ」와 「·」의 글자를 섞어 써서 混亂을 겪었는데 現代에 와서는 「ㅡ」[i]의 글자와 音價로 確固하게 인식한다.

이것은 「ㅡ」[i]는 近世語 期間에 音價에 변화가 있다가 現代語에 와서 그 音價를 완전하게 회복한 것을 드러낸다.

둘째, 日本音의 한글 轉寫에서

日本音[u]를 한글로 轉寫한 다음 같은 資料에서 한글의 「ㅡ」[i]음이 變化를 겪은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 | | |
|-----------------|------------------------|
| ① 海東諸國記(1501) | su(스), tsu(츠) |
| ② 初刊 捷解新語(1618) | tsu(쥬, 쥬), su(수, 쑤, 수) |

③ 改修 捷解新語(1781) su(스, 쓰, 스), tsu(즈, 쯔)

☆ 國際音聲記號로 표기한 것은 日本 假名을 音譯한 것이고 () 안에 넣은 것은 그 소리를 轉寫한 한글이다.

日本 假名の [u]音은 現代語에서도 齒音 아래에서는 [i]音으로 發音되고 그 밖의 子音 아래에서는 [u]音으로 發音된다. 齒音 아래서 [i]音으로 發音되는 것은 齒音이 口蓋性を 띠어 [i]의 位置에서 調音되므로 그것에 同化한 音韻論的인 變異音이다. 그러므로 ①의 16世紀의 海東諸國記(1501)보다 앞 선 15世紀 日本語에서도 齒音 아래의 u글자는 [i]音으로 發音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②의 初刊 捷解新語에서는 다른 子音 아래의 母音과 마찬가지로 齒音 아래의 母音도 한글 「ㅓ」(u)로 轉寫하였는데 이것은 u로 표기된 日本 假名の 音素表記에 따라 轉寫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에 든 책의 日本語 齒音 아래에서의 u에 대한 한글 轉寫를 時代別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⁵⁾

(15세기)	① (16세기 초)	② (17세기 초)	③ (18세기 말)
*「ㅡ」[i]	·[ə]	「ㅓ」/u/	「ㅡ」[i]
		**「ㄱ」[ə]	

☆ *표를 한 「ㅡ」[i]는 15세기의 한글 轉寫를 추정한 것이고 **표를 한 「ㄱ」[ə]는 音素 「ㅓ」/u/ 표기의 한글 音聲 轉寫를 추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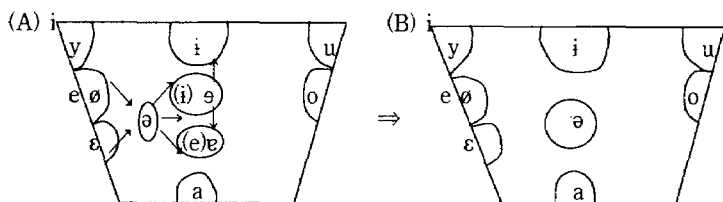
위의 한글 轉寫의 例로 u가 齒音 아래에서 실현된 日本音 [i]의 轉寫는 16세기 초부터 한글 「ㄱ」[ə]로 轉寫되고 18世紀末에서는 「ㅡ」[i]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한글 轉寫로써 「ㅡ」[i]는 한 때 「ㄱ」[ə]로 변하였다가 다시 「ㅡ」[i]로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ㄱ」母音의 一次 消失 이후에 ㅓ母音逆行同化가 일어나 [e]와 [ɛ], [y]와 [ø]음 등이 發生하였다. 이 前舌母音의 發生은 前舌母音의 영역을 확충하므로써 [e] 모음을 代理하고 있는 [ə]音을 中舌音 쪽으로 강하게 밀쳐 내었다. [ə]音이

5) 이 資料는 金完鎮의 「15世紀 母音體系의 本質」 『國語音韻體系의 研究』에 提示된 證據인데 筆者는 그것을 다르게 解釋하였다.

中舌音과 後舌音 쪽으로 밀리면서 이 時期에 口蓋音化가 소멸되었으므로 [ɟ] 영역에 下降했던 「ㄱ」을 위로 밀쳐서 [i]의 자리에 복귀하게 하고 [ɐ]의 위치에 下降해 있던 「ㄴ」을 아래로 밀쳐서 [a]에 합류케 했다. 이것이 「ㄴ」音의 二次消滅로 「ㄴ」音의 완전소멸이다. 이렇게 하여 近世韓國語의 母音體系인 大母音體系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變化를 母音圖로 보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이 大母音體系는 前舌母音이 많이 發生한 것이 特徵이며 서울 方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大母音體系를 發達시킨 것은 漢字音을 잘 아는 學者들이 저술한 文獻語를 中心으로 發達한 言語이다. 그러므로 이 大母音體系에서 많은 前舌音의 發達은 前舌音이 많은 漢字音의 影響으로 보인다.

文獻語나 서울 方言이 아닌 方言에도 大母音體系가 보이는데 이것은 文獻語에서 이루어진 大母音體系의 擴散으로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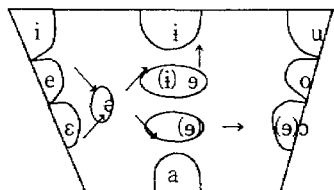
中央語 외의 다른 方言에서 [ə]의 前舌音變異音이 中舌音 쪽으로의 물리나면서 下降한 「ㄴ」[ɐ]를 後舌音 쪽으로 물리쳐 「ㄴ」[ɐ]音이 後舌音化한 예가 있다. 濟州道方言에서는 「ㄴ」[ɐ]를 [ɔ]音化시켰다.

그러한 變化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 (A)와 같다.

(A) (제주도 方言 體系)

i i u
e ə o
ɛ a ɔ

(B)



☆ 위 그림 (B)의 오른쪽 줄 밖의 ɔ는 그 자리의 실제 音を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陸地方言에서는 下降한 「·」[ɐ]는 [o]로도 변하여, 「·」[ɐ]는 [ə] 變異音이 中舌音 쪽으로 移動함에 말미암아 [o]나 [a]로 바뀌었다. 「·」[ɐ]가 [ɔ] 또는 [o]로 바뀐 예를 몇 개 들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방언) (함경, 전라, 경남 방언)

폴(小豆)	p ^h ot	p ^h ot
폴(蠅)	p ^h or	p ^h or

2) 日本語의 大母音體系

日本語의 大母音體系는 奈良時代의 萬葉假名에서 볼 수 있는데 日本學者들은 다음 같은 8母音體系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體系는 「i e o」의 母音を 甲, 乙類로 분석하고 乙類는 umlaut記號로 나타낸 것이다. 乙類의 音價에 대한 國際音聲記號는 그 아래에 ()안에 표시한다.

i	ĩ	e	ë	o	ö	a	u
(i)		(e)		(ø)			

이 日本語의 大母音體系는 文獻語와 더불어 이루어진 韓國의 現代 서울 方言과 비슷하다. 奈良時代의 母音과 對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⁶⁾

(韓國 서울 方言)	i	y	e	ø	ɛ	ĩ	ə	a	u	o
(日本 奈良時代語)	i		e	ö	ë	ĩ		a	u	o

6) 奈良朝 8母音에 대하여 泉井久之助는 그 辨別資質을 다음처럼 보이였다.

	(前母音)	(後部母音)
狹母音	ü	i
中廣母音	ö	o
廣母音	ə(ä)	a
	(圓脣的) (非圓脣的)	(圓脣的) (非圓脣的)

그러나 [i]와 [ɨ]는 音聲上으로 같은 것은 아니다.

이 日本語의 大母音體系는 韓國語에서와 마찬가지로 韓·日上古母音의 變異音의 統合과 그 統合音素體系에서 변했겠으며 다른 母音보다 좀 이른 時期에 이루어졌겠다.

韓國語와 日本語의 古代語를 表記한 漢字音에 대해서는 筆者는 다음 같은 見解를 가지고 있다.

(A) 韓國語를 表記한 漢字

- ① 78世紀의 韓國語를 表記한 漢字音은 現代에 傳하고 있는 傳承漢字音과 일치한다.
- ② 78世紀의 新羅語에는 前舌音 'e ɛ y ø' 등이 發達하지 못하였으며 中國音과 다른 나라의 e音은 ə音으로 對應시켜 사용하였다.

(B) 日本語를 表記한 漢字

- ① 日本의 漢字 受容에서 初期에 日本에 전한 것은 韓國人이므로 初期의 日本 漢字音은 韓國漢字音 그대로 傳하고 受容한 것으로 본다.⁷⁾
- ② 그 뒤에 日本內에서 音韻體系의 變化 中國漢字音의 영향 등으로 吳音이 이루어졌겠다.
- ③ 또 그 뒤에 8世紀 長安音을 基盤으로 한 漢音이 이루어졌겠다.

그래서 日本語 漢字音은 이러한 견해에 의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表記 글자에서 분석되는 奈良時代 日本音에서는 韓·日 上古語의 變異音을 統合한 統合音 'i i ə a u o' 6母音 가운데 'i a u o' 4母音만 있고 'i ə' 2音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ɨ]音은 '歸[귀], 貴[귀], 紀[기]' 등의 [ui, iɨ]音이 섞여 있어 원래 [ɨ]音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筆者는 [ø] 音의 假名 글자가 韓國音으로 볼 때 [i]와 [ə] 두 類의 ø로 나누어지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ø]의 假名 글자가 [i]와 [ə] 두 類로 나누어지는 것은 日本語에서도 원래 i와 ə의 두 음이 있었는데 그 둘이 統合되

7) 藤井茂利는 그의 著『古代日本語의 表記法研究』에서 日本 古代 音假名の 特殊한 音이 日本歸化 韓國人에 의해서 日本에 受容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어 ö음으로 변한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ö에 포함된 두 類를 합치면 日本語에서도 統合音 6母音이 존재한다.

萬葉假名에表記된 漢字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 萬葉假名の 漢字音과 韓國傳承漢音의 統合母音이 같은 소리임을 볼 수 있다. 아래의 表는 大野透가 作成한 變遷表에 의한다.⁸⁾ 단 ö의 假名音은 筆者가 韓國傳承漢字音에 따라 [i]와 [ə]의 두 類로 나눈다.

韓・日上古音의 變異音의 統合音은 「i i ə a u o」의 6音이다. 이 6音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A)		(620)	(700)	(720)	(760)
	i(i)	伊	伊	伊	伊
	a(a)	阿	阿	阿	阿
	u(u)	(汗)	字	字	字
ö	{ (i)	意	意	意	意
	{ (ə)	於	於	於	於

(B)		(620)						
		(k)	(s)	(t)	(n)	(F)	(m)	(r)
	i(ə)	支	(斯)之	至	爾	比	末	利
	a	加	沙	多	那	波	麻	羅
	u(o)	久	須	(都)	(奴)	夫	(牟)武	留
	o(u)	古	蘇	刀(斗)	努	菩	毛	路
ö	{ (i)(ə)	己	思	止	乃	富	毛	里
	{ (ə)	(許)	曾	等	能	保	母	(呂)

☆ '620, 700, 720, 760'은 西曆紀元後의 年代를 보인다.

☆ 表題音에서 ()를 한 소리는 (A)에서는 韓國傳承漢字音을 보이고 (B)에서는 ()를 한 글자의 韓國전승한자음을 보인다.

8) 大野透 『萬葉假名の 研究』 P.P. 141~142

☆ (620) (700) (720) (760)은 연대를 보인다.

☆ 한자의 글자를 ()로 쓴 것은 韓國傳承漢字音으로 보아 表題 母音과 소리가 다를 것을 보인 것이다.

위의 漢字의 音이 韓國傳承漢字音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몇 가지 일치하지 않는 글자의 소리가 있다.

- ① [u]를 표기한 「汙」(오)와 [si]를 표기한 「斯」(스)는 다른 日本音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 ② [u] 母音을 表記한 「都」(도)와 「奴」(노), 牟(모)와 [o]를 表記한 「斗」(두)는 日本音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 ③ [ö]를 표기한 글자로써 韓國音 [i]나 [ə] 또는 [a]에 對應하는데 「保, 毛, 母」는 [u]나 [o]의 母音을 가져서 서로 對應하지 않는다.
- ④ [ö]를 表記한 兩脣音의 글자는 [o] 母音을 가진 글자를 썼는데 「富」가 섞여 있다. 「富」는 [u] 母音 글자여서 다른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⑤ [ö]音을 표기한 글자는 韓國音의 i ə ə音에 對應되는데 [ö]音의 표기글자로 사용하여 韓國音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의 ①은 그 時代 音韻의 特殊한 現象에 말미암은 것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키로 한다. ②는 日本音의 音韻의 特性으로 보인다. ②는 兩脣音 [m]과 齒槽音 [t]와 [n] 등 前舌性 子音 다음의 [u]音은 간극이 큰 [o]音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兩脣音 다음의 平脣母音이 圓脣音이 되는 것은 圓脣母音化이고 前舌性 子音 다음의 [u]化는 現代 日本語에서 外國의 非成節子音(終聲)에 母音 [u]를 添加해서 發音하는 경우에 [t] 자음에서 [o]를 첨가해서 發音하는 例와 같은 것이다.

(영어)	(일본음 전사)	(영어)	(일본음 전사)
(A) Desk	デスク(desku)	(B) Hint	ヒント(hinto)
Club	クラブ(kurabu)	Coat	コート(ko:to)
Nazis	ナチス(natsisu)	Copyright	コピーライト(kobi:raito)
Totem	トータム(to:temu)		

Total トータル(to:taru)

Menu メニュー(menju:)

(A)는 [t] 子音 외의 다른 子音의 非成節音에 [u]를 첨가해서 발음하는 예이고 (B)는 [t]子音 非成節音에는 [o]를 첨가해서 발음하는 예이다.

③은 兩脣音 다음의 非圓脣 母音을 圓脣化하는 강한 圓脣化 現象으로 [ə]나 [ə]가 [o]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⑤ [ö]音 表記 글자는 母音에는 「意」(의)와 「於」(어)가 쓰여 [i]와 [ə] 母音이 함께 쓰였고 子音 音節에서는 「己」(기)와 「思」(스)와 許(허)가 함께 쓰여 역시 [i] 또는 [ə]와 [ə] 母音이 함께 쓰였다. 古代韓國語에는 i韻尾를 가진 [ii], [ei], [ai] 등의 複母音은 흔히 그 i韻尾를 덜어 버리고 [i], [ə], [a] 등의 單母音을 表記하였다.

皆理米(그리미, 慕)<三遺, 慕竹旨郎歌>	皆(기 > 그)	ii > i
去內如(가늌다, 去)<三遺, 祭亡妹歌>	內(니 > 느)	ei > ə
望阿乃(바라나, 望)<三遺, 怨歌>	乃(내 > 나)	ai > a
潘南郡 本百濟半奈夫理<三史, 地三>	奈(내) > 南(남)	ai > a
蘭浦縣 本百濟內浦縣<三史, 地三>	內(내) > 蘭(란)	ei > a

그러므로 韓國漢字音 ‘意[ii], 己[kii]’는 ‘意[i], 己[kɨ]’로 收容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曾(중), 等(등), 能(능)」은 韓國音으로는 [i] 母音을 가진 글자이다. 그러나 이 글자들이 日本音에서는 終聲 ㄱ을 u로 발음하여 그 母音이 [iu]로 발음되었겠는데 核母 [i]가 그 韻尾音 [u]에 同化하여 [o]로 되어 日本音으로서로 일찍 [ou]로 발음되어 兩脣音 子音에 크게 同化되어 버린 富(Fu), 保(Fo), 毛(mo), 母(mo)와 함께 韓國音 [ə]에 對應된 것으로 보인다.

ö {	(i/ə)	己[kɨ]	思[sə]	止(*ti)	乃[*nə>na]	里[ri]
	(ə)	許[Fə]	曾*[sou]	等*[tou]	能*[nou]	呂[rɨə]

이 [ö]音 글자들은 漢字의 上古音이나 中古音에서도 圓脣音이 아니다. [ö]의 圓脣母音으로 바뀐 것은 日本語 自體에서 일어난 音韻變化에 의한 것이다.

다음으로 統合體系 이후에 發生한 前舌母音을 살펴 보기로 한다.

[e]와 [ë]의 表記 글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A) e						
(620)						
		<日本音>	<韓國音>			
(a)	ke	祁(e/i)	괴			
	se	西(sae/sei)	서			
	te	氏(tai/tei)	더			
	ne	尼(nai)	니			
	Fe	俾(Fi)	비			
	me	賣(mai/bai)	매			
	re	禮(rai/rei)	레			
(b)		(620)	(700)	(720)	(760)	
	ke	(祁)	祁, 下	祁, 下	祁, 下	
	<日本音>	ke	ke, ge	ke, ge	ke, ge	

(B) ë						
		(620)	(700)	(720)	(760)	
(a)	(ë)	(衣)	衣依	衣依愛	衣依愛	
	<日本音>	e/i	e/i	ai		
	<韓國音>	의	의	애		
(b)	(k)	(k)	(g)	(F)	(b)	(m)
	(ë)	居	義	閉	倍	米
	<日本音>	ko/kjo	gi	Fai/Fei	Fai/bai	mai/bei
	<韓國音>	거	의	폐	배	미
		(620)	(700)	(720)	(760)	
(c)	kë	居	居, 氣	居, 氣	氣	
	<日本音>	ko	ko, ke	ko, ke	ke	
	<韓國音>	거	거, 괴	거, 괴	괴	

☆ '620, 700, 720, 760'은 서력기원의 연대를 보인다.

☆ 日本音의 왼쪽은 吳音을 보이고 오른쪽은 漢音을 보인다.

[e]와 [ɛ]의 表記 글자를 보면 그 母音이 둘 다 「i, e, ai, i」 등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類의 音價를 알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데 앞 선 子音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軟口蓋音의 例 (A)e와 (B)ɛ의 [ke]와 [kɛ]를 비교해 보면 日本音에서 [ke]가 각 시대를 통하여 [ke]를 유지하고 변함이 없으나 [kɛ]는 620년대는 [ko]이고 그것이 [ke]와 혼용되다가 760년대는 [ke]로 되고 만다. 이것은 [ko]이다가 뒤에 [ke]로 되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ɛ]는 원래 [o]로도 표기할 수 있는 圓脣音이던 것이 뒤에 변화를 입은 것으로 보겠다.

그리고 前舌母音 [i]에 대한 表記 글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620)	(700)	(720)	(760)
ki	歸	歸貴紀	歸貴紀	歸貴紀
<日本音>	ki	ki ki		
<韓國音>	귀	귀 귀		
Fi	非	非斐	非斐	非斐
<日本音>	Fi	Fi		
<韓國音>	비	비		
mī	未	未味	未味	未味
<日本音>	mi/bi	mi/bi		
<韓國音>	미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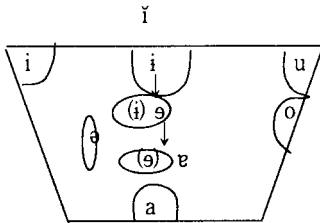
日本音은 모두 [i]이나 韓國音은 앞의 子音 영향이 가장 적은 [ki]에서 원래 「귀」[kwi]이고 뒤에 「귀」와 圓脣性이 살아진 「귀」[kɥi]와 혼용하였다. 그리고는 모두 [i]로 변화였다. 이것은 원래는 圓脣母音이던 것이 뒤에 그 圓脣性이 사라진 것을 드러낸다.

日本古代語의 母音의 發生과 音價의 變化 및 거기에 따른 音韻體系의 變化는 韓國語에서와 마찬가지로 口蓋音化와 ㄹ母音逆行同化 같은 音韻變化現象이 그 原因이 되겠는데 이러한 變化를 유도하는 音韻變化에 韓國語에는 없는 ü 口蓋音化가 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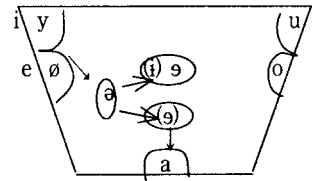
日本の 母音 가운데 가장 변화가 심해 보이는 것은 [ö]音이다. [ö]音은 그 글자의 소리로 보아서 원래의 漢字音이나 韓國漢字音으로 보아 [i], [ə] 등과 [ə] 音으로 나누이고 平聲音이던 그것들이 日本音인 圓聲音 [ö]로 변하는 큰 변화를 겪었다. 또 母音體系上에는 中舌音 [i], [ə] 등이 없는 것도 큰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韓·日語 統合體系로부터 그 音韻體系의 變化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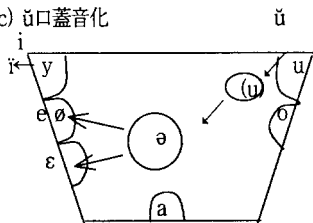
(a) i口蓋音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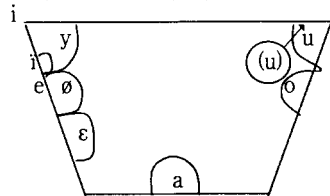
(b) i母音逆行同化



(c) ü口蓋音化



(d) 日本大母音體系完了



韓國語에서와 마찬가지로 日本語에서도 統合音韻體系가 이루어지고 난 뒤의 音價와 音韻體系의 變化는 口蓋化와 i母音逆行同化의 音韻變化現象이 原因이 되어 일어났겠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위의 그림 (a)에서 보인 i口蓋音化이다. [i]의 강한 口蓋性滑音이 [i]와 충돌하여 [i]音이 [ə]의 자리로 물러났다. i가 ə의 자리로 물러나므로 해서 非辨別的인 ə는 i와 합치고 그것과 辨別되는 ə는 [ɐ]의 자리로 물러났다.

그리고 i母音逆行同化가 발생하여 前舌半閉母音 [e]가 생겨나자 [e]의 자리

까지 영역을 뺀치고 있던 [ə]音を 밀쳐내어 [a]가 中央으로 밀려나면서 中央에 자리를 잡고 있던 [i]가 下降한 音과 [ə]音を 통합하여 中央音を 이루었다. 이러한 사실은 [ø]音에 [i], [ə], [a]音が 포함된 것이 증거한다.

그 뒤에 日本語에서는 ㅈ口蓋音化가 이어 일어났다. 그러자 ㅈ의 口蓋滑音이 u와 충돌하여 u가 下降하여 o音域으로 옮기고 ə영역에 충격을 가하여 [ə]音を 前舌音 쪽으로 밀쳐 내었다.

ㅈ口蓋音化 때문에 u가 下降한 사실은 620년대에 u音を 韓國音 o(汗)로 表記한 것이 증명한다. 그 때는 아직 日本漢字音이 韓國傳承漢字音과 같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日本音 u音이 o音으로 변했으므로 일부 音を 실제 소리대로 o(汗)音으로 表記한 것이다.

日本の 音假名에서 [模]韻 漢字는 [o]母音으로 使用되었는데 「汗, 都, 布」 등의 [模]韻 漢字가 [u]母音의 音으로 使用된 데 대하여 藤井茂利는 藤堂明保, 大野透, 森山峰 등의 說을 비판하면서 “古代韓國語에 보여지는 o ↔ u 相通, 轉用의 用法이 日本에 들어와 運用된 結果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⁹⁾

韓國語에 보여지는 相通, 轉用(梁柱東 說)이라는 것은 실상 /u/音素에 대한 A方言의 音聲 [o]와 B方言의 音聲 [u]를 漢字의 音으로 나타낸 것이고 漢字自體의 音이 [o]나 [u]로 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日本 音假名の 「汗, 都, 布」 등 漢字는 [o]母音 글자로 使用된 것이고 그것이 音素 /u/를 표기한 것은 日本語가 ㅈ口蓋音化의 活動으로 [u]音이 [o]音의 音域으로 下降해서 실제로는 [o]音으로 났으나 그래도 前의 音素觀念에 따라 여전히 /u/로 表記했으나 일부의 表記에서는 실제 발음대로 [o]母音을 가진 「汗, 都, 布」 등의 漢字로 表記한 것이다.

그 뒤에 ㅈ口蓋音化의 세력이 弱해지자 半閉母音 [o]와 對立하여 곧 閉母音 [u]의 자기 위치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충격으로 中央에 있던 [ə]는 前舌音의 [ø]音域으로 침입하여 圓脣母音 [ø](ö)로 되고 일부는 아래쪽의 [ɛ](è)音의 자리로 밀려났다.

9) 藤井茂利 著, 崔光準 譯, 『古代日本語의 表記法研究 - 東아시아 漢字의 使用法 比較-』, P.P. 219~232

이러한 사실은 [i], [ɛ], [ə] 등 平唇音이었던 것이 圓唇音[ø](ö)가 된 것과 ɛ가 韓國音 [ii](i), [ə]로부터 [e], [ai](ɛ)로 변한 것이 입증한다.

日本學者들은 [o]音의 乙類 [ö]音을 中國의 中古漢字音을 가지고 理解하고 例外가 되는 字音에 대해서도 많은 學者들이 역시 中古漢音에 의해서 說明하려고 하였는데 藤井茂利는 그것을 古代韓國漢字音으로 說明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古代韓國漢字音에서 [ö]음이 이루어진 例는 발견할 수 없다. 日本 假名の [ö]音의 成立은 古代韓國漢字音을 日本에 受容한 뒤에 日本語의 母音體系變化로 이루어진 것이다.

[ə]音에 충격을 받은 前舌圓唇母音 [ø]音은 위로 올라가 ‘畏(외), 外(외)’ 등 일부는 [y](ui)의 자리를 차지하고 ‘外(외), 會(회)’ 등 일부는 [e]로 밀려났다.

(韓國音) (日本音)

(A) 畏[ø] 외[y](ui) ウイ

畏[ø] 외[y](ui) ウイ

(B) 外[ø] 외[ge]/[guai] ゲ/グワイ

會[hø] 회[je]/[kuai] エ/クワイ

이렇듯 [ø]音이 [y]音 자리를 침범하자 [y]音이 圓唇性을 잃고 [i]의 자리로 밀려 났으며 뒤에 [i]에 합류했다. 그러한 사실을 다음 같은 [k] 초성을 가진 音假名の 예가 증거한다.

[y] > [ii] > [i]

古代韓國漢字音에서는 [ii]는 [i]의 표기에 使用되었지만 이 [ii]는 뒤에 다음 처럼 두 가지 음으로 변했다.

{ (a) 마디 > 마디(節)

ii, ɐi > i {

{ (b) 어디 > 어디(何處)

스미 > 소매(袖)

- { 구턱여 > 구태여
 e, ε { 비호다 > 베풀다(施)
 { 나의 조국 > 나에 조국

그런데 [i]와 [ɐ]가 변한 [i]는 원래의 [i]와는 달라서 口蓋音化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점으로 보면 이들은 원래의 [i]와 다른, [i]보다 간극이 큰 [i̯]로 보인다. 이런 점으로 보아 日本 假名の [i]의 乙類 [i]는 [i]가 아니고 口蓋音化가 되지 않는 [i] 곧 [i̯]로 보인다.

이런 결과로 앞에 든 그림 (d)와 같은 'i y e ø a u o'의 奈良時代 日本의 大母音體系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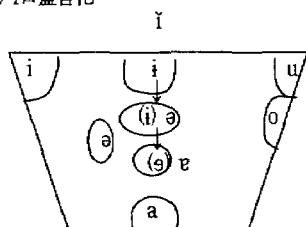
3) 小母音體系

小母音體系는 大母音體系가 줄어서 된 것이 아니고 統合體系가 이루어진 다음에 口語中心으로 이루어진 體系이다. 大母音體系가 前舌母音이 많음이 특징이나 前舌母音을 제외하고도 小母音體系는 大母音體系와 다르기도 하다. 大母音體系인 現代韓國語의 中央語(서울 方言)와 小母音體系인 慶尙道方言이 그러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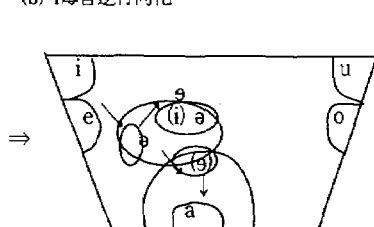
(A) 慶尙道方言

慶尙道方言의 小母音體系는 다음 그림처럼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된다.

(a) 口蓋音化



(b) i母音逆行同化



口蓋音化가 發生하여 i는 i 滑音과 충돌하여 ɐ 자리로 밀려 나자 ɐ는 一部

는 i와 合流하고 一部는 下降하여 [e]의 자리에 머물었다.

그 다음에 l母音逆行同化가 일어나 e母音이 發生하여 영역을 확대하자 e자리에 진출해 있는 ə와 충돌하고 ə는 밀리어 中舌 中央部로 밀리어 거기에 있는 소리들과 合流하여 ə音を 이루고 ə는 a쪽으로 밀쳐 a와 合流하였다.

그래서 慶尙道方言은 'i e ə a u o' 6母音體系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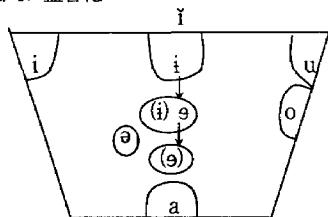
(B) 東京方言

日本の 東京方言의 小母音體系 'i e a u o'는 奈良時代의 大母音體系와는 별개로 발달한 것이다. 奈良時代의 大母音體系에 비하여 'i ē ō'의 세 母音이 적다. 이러한 母音體系는 다음 두 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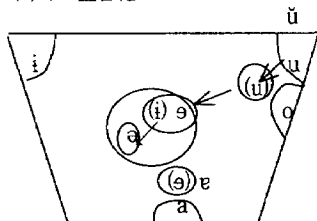
- ① 前舌母音이 盛하게 발달하지 못했다.
- ② [ə]音이 前舌圓脣音化하지 않았다.

[ē](e)音이 발생하지 못한 것은 위의 ①의 현상이고 [i], [ō]音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위의 ②의 현상인데 위의 ②의 현상은 ü口蓋音化와 l母音逆行同化의 발생 차례가 大母音體系의 경우와 다른 때문으로 보인다. 統合母音의 7母音體系로부터 東京方言의 5母音 小母音體系의 발달은 다음처럼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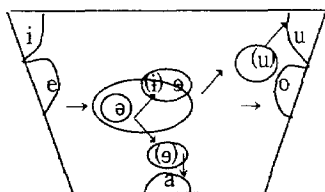
(a) i口蓋音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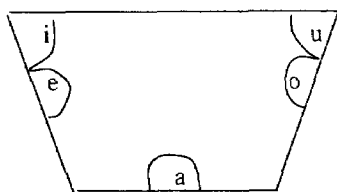
(b) ü口蓋音化



(c) I母音逆行同化



(c) 小母音體系完成



i口蓋音化가 일어나서 [i]音은 [ə]音과 합하고 /ə/音의 일부는 밀려 내려가 [e]音의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위 그림에서는 [ə]에서 變한 소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ə)로 표시하였다.

그런 뒤에 ũ口蓋音化가 일어나서 [u]音이 [o]音자리 쪽으로 밀리면서 [ə]와 합류한 (i)音을 前舌쪽으로 밀쳐서 [ə]음과 合流시켰다.

그 뒤에 l母音逆行同化가 일어나서 [ə]音을 中央으로 밀쳐내었다. [ə]는 中央으로 移動하면서 [e] 자리의 (ə)音을 아래로 밀쳐서 [a]와 合流시키고 (u)를 위로 밀쳐서 본래 자리로 돌이키고 [ə]는 [o]에 合流하였다. 그래서 'i e a u o'의 5母音體系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주제어 : 韓·日 上古語의 母音體系, 原始 韓·日語의 母音體系, 統合母音體系, 變異音의 統合과 音素化, 母音調和, 「·」母音, 二重母音, 弱滑音, 大母音體系, 小母音體系

참고 문헌

金思燁, 『古代朝鮮語と日本語』, 講談社, 1974

『記紀萬葉の朝鮮語』, 明石書店, 1998

金完鎭, 『國語音韻體系的 研究』, 一潮閣, 1971

徐廷範, 「原始國語再構을 위한 韓日兩國語의 共通祖語研究」, 『慶熙語文學』 第六輯, 慶熙大學校出版部, 1983

姜吉云, 『韓國語系統論』, 上, 下, 螢雪出版社, 1988

李基文, 『新訂版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2001

金公七, 『古代日本語 - 文法の 記述과 比較-』, 한국문화사, 1998

권재선, 「한·일 수사의 비교연구」, 『우리말의 연구』, 우골탑, 1994

「한·일어의 신체어 비교연구」, 『대구어문론총』 제 14집, 대구어문학회, 1996

「한·일 격조사의 비교고찰 - 목적격, 부사격 일부를 중심으로-」, 『由南 申碩煥博士回甲紀念論文集』, 간행위원회, 1977

「한·일 방위어의 비교연구」, 『대구어문론총』 제 15집, 대구어문학회, 1977

「한·일 좌우어의 어원고찰」, 『한결 이승명박사 회갑기념논총』, 방이정 출판사, 1998

「한·일 전후어의 어원고찰」, 『慕山學報』 第 10輯, 慕山學術研究所, 1998

白鳥庫吉, 「日本語の古語と朝鮮語との比較」, 『國學院雜誌』 4-4-12, 1897

金澤庄三郎, 『日韓兩國語同系論』 1910

新村出, 「國語及び朝鮮語の數詞について」, 『藝文』 7-2·4(『言葉の歴史』에 수록) 1910

泉井久之助, 「上代日本語における母音組織と母音交替」, 『京都大學五十周年紀念論集』 1956

大野透, 『萬葉假名の研究』, 明治書院, 1962

藤井茂利 著, 崔光準 譯, 『古代日本語의 表記法研究 - 東아시아 漢字의 使用法 比較-』, 제이앤씨, 2001

Aston, W. C. 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JRAS New Ser 2. 1879

Ramstedt, G. J.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SFOu 95)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SFOu 105-2) 1953

Additional Korean Etymologies edited by Aalto JSFOu 57. 1954

Poppe, N, Review of G. J. Ramstedt's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JAS 3·4

※ 이 논문은 2002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5월 2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6월 1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